

여자는 자신이 수입품이었기에 화가 난다.

여자는 자신이 수출품이었기에 화가 난다.

여자는 어린이를 입양 보내는 국가는 물론 입양기관도 국가 간 입양을 통해 돈벌이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여자는 『내부의 이방인—국가 간 입양에 관한 보고서』¹를 읽은 후, 한국이 국가 간 입양을 통해 연간 1천5백만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것을 깨닫고 화가 난다.

여자는 입양기관이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일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물론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들이 입양 보낼 아이들을 먼저 찾아나선다는 사실은 참을 수가 없다.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태생적 문화와 부모에게서 무작정 분리하기보다 그 부모와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아야 한다.

여자는 미국 입양기관인 국제홀트아동복지회에서 북한을 비롯해서 아이들을 모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다는 소문에 화가 난다. 국제홀트아동복지회는 그간 불가리아, 중국,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아이티, 인도, 한국, 필리핀, 루마니아, 태국, 우간다, 우크라이나, 미국, 베트남 등지에서 입양할 아이들을 물색했다. 만약 북한 사회가 무너진다면 북한도 여기에 포함될 것

이다. 국제홀트아동복지회가 북한 사회의 붕괴를 바라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그들은 북한을 거대하고 새로운 시장의 하나로 생각하니까.²

여자는 오늘날 ‘아이들을 위해 부모를 찾아주는 일’보다 ‘부모들을 위해 아이를 찾아주는 일’이 더 우선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바로 그 때문에 소위 ‘어린이 수집가’라는 말도 생겨나지 않았던가.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이 입양을 보내려는 부모들보다 훨씬 많지 않았더라면, 입양기관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부모들에게 아이를 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큰돈을 쓸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여자는 입양 보내기를 원하는 부모보다 입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더 많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